

민
정
실

음
진
천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부처님 오신날 7일 기도 입채 및 연등 만들기
 다섯째주 일요일 10시 30분 칠일 기도 회향 및 봉축 법요식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제자에게 귀의하면,
 진실로 네 가지 진리를 볼 수 있네.

He who goes for refuge to Buddha, to Truth and to those whom he taught, he goes indeed to a great refuge. Then he sees the four great truth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부처님 오신날 의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탄생하셨다.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이 외침은 장차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 즉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선언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함으로서 시작하였고,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붓다'(Buddha)를 따서 만들었으며,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한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涅槃)을 성취한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내려 오셨다. 그 분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의 동산 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신 우리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전세계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나"를 찾겠다는 분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중생의 병의 종류에 맞춰 약을 주셨던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에 맞게 처방을 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와 정신적 혼돈, 그리고 분단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교적 갈등과 이념의 대립으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또한 우리 불자가 이 시대에 처방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연등축제의 역사

'인도' - 가난한 여인의 등 불

부처님께는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고 밤에는 등불로 공양을 올렸다고 한다. 등공양을 올리는 장면도 경전에 보인다. 현우경에 있는 '빈녀 난타'의 이야기에서 부처님 당시의 등공양 모습이 쓰여 있다. 부처님이 영취산에

계실 때의 일로 밤이 깊어 다른 등들은 다 꺼졌으나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지극한 정성과 발원으로 밝힌 등불만이 밤이 깊어도 끝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 "이 여인은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며 수미등광여래라 할 것이다" 라 말씀하셨다.

'신라'

- 간등(看燈)

신라 경문왕 6년(866) 정월 15일과 진성여왕 4년(890) 정월 15일 황룡사로 행차하여 연등(燃燈)을 간등(看燈)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 연등회(燃燈會)

고려 시대는 불교가 국교였던 시대였다. 연등회는 팔관회와 함께 고려의 2대 명절로 정착되었으며 국가적인 행사로 연등도감을 두어 주관하였으며 음력 정월 보름이나 2월 보름에 국왕과 온 백성이 풍년을 기원하며 궁궐부터 시골까지 갖가지 화려한 연등을 밝히고 잔치를 열고 가무를 즐겼다. 고려 23대 고종 32년(1245년)부터는 최이에 의해 연등행사를 초파일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

- 호기(呼旗)놀이, 관등(觀燈)놀이

조선조에 들어서는 관청중심의 행사는 중지되었으나 민간에서는 민속행사로 남아 세시풍속으로 전승되었다. 초파일에 앞서서 등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종이를 잘라 등대에 매달아 기를 만들어 들고 장안을 돌아다니며 쌀이나 돈을 구하여 등 만드는 비용으로 쓰는 호기놀이가 성행하였다. 초파일의 낮에는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저녁에는 집집마다 세운 등대에 자녀수대로 등을 밝혔다. 거리 곳곳에도 형형색색의 등을 달았으며 밤에는 온장안의 남녀들이 등을 들고 나와 불꽃바다를 이루었고, 등으로 거대한 산과같이 장관을 이룬 것을 구경하는 관등놀이를 즐겼다.

'근대'

- 관불의식(灌佛), 제등행렬(提燈)

일제시대에는 시내에(광화문통 광장, 조선은행 앞 광장, 장충단 3곳. 후에 경성부, 탑골공원으로 바뀜)꽃으로 장식한 탄생불을 모시고 관불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공양올린 등에 불을 켜고, 또한 등을 들고 흰 코끼리를 앞세워 종로-을지로-광화문을 도는 제등행렬을 하였다.

'현대'

- 제등행렬, 연등축제

해방 후에는 조계사-종로 4가-을지로-시청앞-안국동-조계사를 도는 제등행렬을 하였으며 후에는 동국대-종로-조계사까지 제등행렬을 하였다. 1975년부터는 초파일이 국가공휴일로 되었으며 1976년부터는 여의도광장-조계사에 이르는 제등행렬을 하였다.

2540(1996)년 부터는 연등축제로 이름을 붙이고 동대문 운동장 - 조계사에 이르는 제등행렬을 비롯하여

법회소식 NEWS

- 그동안 신도님들의 연등 제작 동참으로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제작 불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연등은 7일 기도후에 일년간 법당에 모십니다. 신도님들은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2550 년째 맞이하는 연등 불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권선해 주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복축 관등 모연문”은 사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참금은 미국에서는 50 불이고,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신도님들은 5만원 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영가 일년 연등도 동일하게 50 불입니다. 형편에 따라 1인 1등으로 하실것인지 가족등으로 한등을 켜실것인지는 신도님들 각자가 결정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 양력 5월 5일 (음력 4월 8일) 은 2550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 부처님 오신날 입니다만 평일날인 관계로 올해에도 5월 5일 바로 앞에 있는 4월 30일 일요일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갖습니다.
7일 기도 입재 및 연등 만들기: 4월 23일 (일요일) 11시
7일 기도 회향 및 봉축 법요식: 4월 30일 (일요일) 10시 30분
1부 : 기도회향 및 헌공
2부 : 명종, 점등, 관불의식, 헌화, 설법 등
3부 : 가든 파티
- 양력 4월 9일 한국 용산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신랑 덕운 김진희 거사님과 신부 이인수 불자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덕운 거사님은 미국에서 미주리 대학에서 유학중에도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불국사 정기 법회에 열심히 참석하셨음은 물론이고, 지역포교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건이 되는 분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선남선녀의 화축을 축하해 주십시오.

- 3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30번 정유생 이용성, 131번 계해생 이상준, 132번 을축생 이상민, 136번 을축생 정재훈, 137번 을사생 조명숙, 138번 경술생 김복남, 139번 을해생 김정현, 140번 무인생 김낙현, 177번 경술생 이남경, 178번 임자생 이윤창, 179번 갑인생 이선영, 211번 임인생 김현수 (헬렌), 321번 신유생 진중우, 322번 임술생 진선희, 323번 임인생 정훈식, 324번 무신생 조주연, 325번 정축생 정지윤, 326번 경진생 정성민, 327번 기유생 백유상, 328번 신해생 류정아, 329번 병자생 백옥태, 330번 경진생 백정미, 331번 갑진생 Jeffrey Clem, 332번 을사생 최미향, 333번 무진생 Brandon Clem, 334번 병자생 Cody Clem, 335번 병진생 최용석.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토로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3월 한 평 불사 동참자: 신묘생 강희성 (백임진, 강정환, 강지환), 박향덕, 을묘생 이선민, 정유생 정재한, 경자생 이해경, 정묘생 정진영, 기사생 정민영.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